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空士新聞

제376호

2024년 12월 27일(금요일)
(창간: 1957. 10. 10.)

| 발행인 차준선 | 주간 박지연 | 부주간 임혁 | 편집국장 정지원 | 발행 공군사관학교(공사신문사) | TEL 043)290-6099 | 주소 2818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사서함 335-1호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왼쪽)이 차준선 신임 교장(오른쪽)에게 지휘권을 이양하고 있다.

제57대 공군사관학교장 차준선 중장 취임

차준선 중장이 11월 28일 공군사관학교 안중근홀에서 제57대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취임했다. 제56·57대 공군사관학교장 이취임식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 하에 인사명령 낭독, 지휘권 이양, 참모총장 훈시, 이임사, 꽃다발 증정, 취임사,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제56대 교장 공승배 소장은 지난 2023년 11월 취임한 이후 생도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여 자기주도적 역량을 갖춘 능동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생도 생활 문화·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국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상 구현을 위한 다양한 협업으로 학교의 내·외적 성장을 도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공승배 소장은 이임사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나보다는 동료와 공군,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명예로운 군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사관생도들에게 “같이의 가치를 지키는 당신이 희망”이라며 바쁘고 쉽지 않은 생도 생활이지만 함께하는 동료를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인격

을 가진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또, “사관학교는 미래 공군을 가늠하는 척도이기에 훈육요원과 교육관계관의 가르침과 지원이 공군의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며 사명감으로 생도들을 명예로운 군인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스승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신임 공군사관학교장 차준선 중장은 공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해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제17전투비행단장,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차준선 중장은 취임사에서 ‘전문성, 합동성과 책임감을 겸비한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급격한 변화는 공군사관학교가 마주한 도전의 기회이며, 대격변 시대를 준비하고 선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이라며 “변화는 거대하지만 나아갈 방향은 명확한 만큼 통합정보작전을 주도할 첨단과학기술군 및 융·복



차준선 신임 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합 인재 양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관생도들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방향과 속도를 명확히 직시하고 과감히 도전하길 바란다”며 도전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 군인으로서의 사명 의식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편집국장 73± 정지원
jkjw0303@gmail.com

제71대 생도대장 김관호 준장 취임



차준선 공군사관학교장(왼쪽)이 김관호 신임 생도대장(오른쪽)에게 임명장 수여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관호 준장이 12월 2일 공군사관학교 제71대 생도대장으로 취임했다. 제70·71대 생도대장 이취임식은 학교장 차준선 중장의 주관하에 인사명령 낭독, 지휘권 이양, 교장 훈시, 이임사, 꽃다발 증정, 취임사,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김관호 준장은 공군사관학교 42기로 임관해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 전투운영처장, 공군대학 총장 등 작전과 교육 분야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김관호 준장은 취임사에서 '생도대가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활기차고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 "훈육요원들의 정성 어린 가르침, 교육관계관들의 보이지 않는 지원 등 생도대 구성원 모두가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할 때 사관생도들은 공군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 생도대 구성원 모두가 협동하며 하나가 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생도들에게는 변화의 시기에 국가와 공군은 도전정신을 갖춘 정예 인재를 원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주어진 교육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이자 국민에게 신뢰받는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편집국장 73± 정지원
jkjw0303@gmail.com

2024년 3군 사관생도 합동교육

하늘과 땅, 바다에서 배우는 합동성



3군 사관학교 3학년 생도들이 공군사관학교에서 특강을 듣고 있다.

육군, 해군, 공군, 간호사관생도가 11월 4일부터 3군 사관생도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사관생도 합동교육은 매년 1, 2, 3학년 사관생도들이 각군 육·해·공군사관학교에 모여 각 군의 임무와 역할을 배우고 각 군의 부대를 견학하며 타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각 군의 문화를 체험하고 친교 활동을 통해 합동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1학년 생도들은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육군사관학교에서 합동교육에 참여했다. JSA경비대대,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항공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GOP부대(6사단), 방첩사령부, Army Tiger 여단을 견학하여 육군의 전력과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 내에서 소부대 전투훈련 체험, 국공·승마 체험, 교훈탐과 같은 문화시설 탐방 등을 통해 육군사관학교만의 특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2학년 생도들은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해군사관학교 주관으로 합동순항훈련을 다녀왔다. 3주 동안 마라도함, 천자봉함, 대청함 함정에서 생활하며 해군의 문화와 관습, 함정 예절 등을 교육받았다. 또한, 항해실습, 전투배치, 손상통제, 보수과업을 통해 해군의 작전과 함정 생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7일에는 일본에 입항하여 미 7함대 강연을 듣고 동맹국의 전투체계에 대한 이해를 함양했다. 다음날에는 일본 통합막료감부를 대표하는 수장으로 자위관 초고위에 위치한 통합막료장의 강연을 들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사관생도들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상황을 공유받아 미래 일본과의 협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교민들의 한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자리인 함상 리셉션에 참가했다.

14일에는 괌에 입항하여 괌 해군기지와 앤더슨 공군기지 견학을 통해 양국 간 우호를 증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괌 스키너 광장에 있는 6·25 참전용사비를 참배·헌화하며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가치를 되새겼다.

3학년 생도들은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공군사관학교에서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공군작전사령부와 제11전투비행단, 제19전투비행단을 견학하여 공군주력 전투기의 제원과 무장을 관찰하며 공군 전투력의 우수성을 느꼈다.

학교에서는 KT-100 시뮬레이터 체험과 패러·동력글라이딩 체험을 통해 공중환경과 공중근무자에 대한 이해를 함양했다. 또한 천문대, 풍동실 등 공군사관학교만의 시설을 통해 공군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다.

처음으로 3군 사관생도 합동교육에 참가한 1학년 동기회장 김우진 생도(76±)는 "첫 합동교육에 임하여 타사관생도들과 함께 생활하고 배운다고 생각하니 설레었고 동기회장으로서 타사관학교 동기회 임원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진정한 '합동'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합동교육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훈육요원과 지휘관 분들 그리고 76기 동기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5면 기획에 계속>

생도기자 76± 박민혁
a4534502212@gmail.com

74기 사관생도 안보의식 함양훈련

2박 3일간 日 오키나와와 주요 기지, 시설 견학

공군사관학교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74기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안보의식 함양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안보의식 함양훈련에서 74기 사관생도들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한국인 위령탑을 참배하고 미군 주요 기지와 오키나와 시내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안보의식 함양훈련에는 74기 사관생도뿐 아니라 수탁교육 중인 국외 수탁생도(8명)와 해군사관학교 수탁생도(1명), 육·해군사관학교 위탁교육 중인 생도(2명)도 참여했다.

이번 안보의식 함양훈련은 생도들이 기지 견학을 통해 유엔사의 기능과 임무 및 연합작전, 우방국 전략자산과 첨단 무기체계를 이해하는 한편, 오키나와의 주요 전사적지 방문을 통해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안보의식 함양훈련에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생도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진행되었다. 11월 13일 일정과 준비물,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11월 15일에는 한미동맹과 전략자산에 대한 이해, 11월 18일 방첩교육까지 마치며 오키나와로 향할 준비를 갖췄다.

안보의식 함양훈련 첫날 오전에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여 오키나와 나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안보의식 함양훈련단은 오키나와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평화 기념 공원에 위치한 한국인 위령탑을 참배하였다. 한국인 위령탑은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대한민국 팔도에서 들어온 돌로

만든 돌무덤과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비석과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 화살표 등이 설치되어 있다.

훈련 둘째 날에는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후텐마 해병기지와 가데나초에 위치한 가데나 미 공군기지를 견학했다. 후텐마기지 견학은 사령관인 대령 윌리엄 C. 퍼캐태의 후텐마 기지 브리핑으로 시작되었다. 브리핑 후에는 후텐마 기지 시설과 기지에 전개된 전략자산인 CH-53 '스텔리온', V-22 '오스프리'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조종사, 근무 요원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다음 목적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는 가데나 공군기지의 전략적 가치와 운용 무기 등을 소개하는 브리핑 이후에 기지 투어를 진행하였다. 생도들은 가데나 공군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략자산인 KC-135, F-15와 무인기 MQ-9 등과 함께 특히 현존 최강이라 평가받는 F-22 '랩터'를 눈에 담은 특별한 경험을 했다.

마지막 날에는 차탄조 마하마에 있는 아메리칸 빌리지를 자유 탐방했다. 아메리칸 빌리지는 미국의 비행장 부지를 반환받아 조성한 공간으로 미국적인 분위기와 다양한 쇼핑 시설 등으로 많은 여행객들과 현지인들이 찾는 단골 명소이다. 생도들은 아메리칸 빌리지를 마지막으로 나하 국제공항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였으며, 2박 3일간 여정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번 안보의식 함양훈련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생도기자 74士 나효빈
nhb9357@gmail.com



장교의 덕목을 기르다

4학년 생도, 리더십 강화 주간 운영

지난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4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 주간이 운영됐다. 공군 보라매리더십센터와 리더십·인성교육실이 주관하여 약 2주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은 코칭 교육과 DRIVER 성격&업무 유형 검사로 구성됐다.

코칭 교육은 올해 처음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공군 구성원으로서 자기 인식과 자기 계발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4학년 생도들이 임관 후 부대 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코칭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생도들은 4개 조로 나뉘어 조별 2일간의 초급 코칭 과정을 이수했다. 1일 차에는 코칭의 정의와 철학을 배우고 경청 및 질문 기술을 익혔으며, 2일 차에는 피드백 기술과 코칭

프로세스를 심도 있게 학습하고 종합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DRIVER 성격&업무 유형 검사를 통해 생도들은 자신의 성격과 업무 스타일을 파악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를 통해 생도들은 임관 후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팀워크를 유지하고, 건강한 의사소통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리더십 강화 주간은 생도들이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기르고, 임관 후 부대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도구를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생도기자 73士 김민
minnn56341@gmail.com

강생도! - 생도대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
- 75士.배영윤

곧 크리스마스인데 외출제한이라니..
힘들...

반죽 섞어!!
열심히 만드는 중..

완성!!
어게 되네..!?
카톡!

눈썰매 탈 사람?
눈사람도 만들까!!
지금 밖으로 나와!!
눈썰매..?!

우리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할건데 같이 할래?!
파티!??
... 그렇게 시작된 Christmas Party in 생도대

1. 망고사고 만들기
말단 이것부터 먹어봐 ㅋㅋ!
어번..!
망고사고!?!
맛있다..

2. 쿠키 만들기
이제 '쿠키' 만들어 가자!!
쿠키!?! 어디에서 만들게..?
중요관에서... ㅎㅎ Cafe Spring
레해.. (오븐도 있다..!)

3. 눈 속에서 신나게 놀기!!
박스로 눈썰매 타기..!
썰매!!
오호!!
눈썰매!!

외출제한이었지만 동기들 덕분에 즐거운 추억이 되었답니다~
고마워 동기들아..!!



성무대 핫소식

하늘 너머 우주로의 새로운 도약

2024년 공군사관학교 미래 항공우주 학술대회 개최

지난 12월 5일, “미래 과학기술 변화와 항공우주력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2024년 미래 항공우주 학술대회가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 안중근홀과 단재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공사와 KAIST가 공동 주관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 KAI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각 군 사관생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도·대학생 분과와 석사과정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생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행사는 오전에 장비 관람, 오후에는 분과별 발표, 우수작 발표, 시상식 및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배포된 학술자료집을 생활실에서 읽고 학년별로 정해진 시간에 안중근홀 1층으로 이동하여 무기체계 및 장비들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안중근홀 1층 로비에서는 LIG넥스원의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 KAI의 UCAV, AAP 등 차세대 무인 복합체계, 텔레픽스 사의 슈에프(Chouette) 위성 카메라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특별 전시가 진행되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주요 방산기업들의 무기체계

와 장비들을 관람하며 무기 기술 및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대학생과 생도가 참가한 분과는 주제에 따라 항공, 우주, 정책, 전략 등 4가지 분과로 나뉘어 발표를 진행했으며 대학원생은 단일 분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생도·대학생 분과에서 대상을 받은 KAIST 추이은 학생은 ‘비대칭 변형 유연관절구조의 개발과 조류모방형 오토크터에서의 적용’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새의 효율적인 날갯짓을 모방한 유연관절구조를 가진 날개 모델을 토대로 오토크터를 실제로 제작, 실험을 수행하여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생도·대학생 분과의 최우수 1팀에는 참모총장상, 우수 2팀에는 교장상, 분과별 장려 1팀(총 12팀)에는 각각 KAI/한화/LIG 특별상이 수여되었다. 한편, 대학원생 분과에서는 최우수 1팀에 KAIST 총장상, 우수 2팀에는 교장상, 장려 1팀(총 3팀)에게는 KAI/한화/LIG 특별상이 수여됐다.

생도기자 74± 김영환
fanta031224@mnd.go.kr



飛上! 메추리에서 보라매로

74기 입교 1,000일

지난 11월 16일, 74기 생도들이 입교 1,000일을 맞이하였다. 청운의 꿈을 안고 성무대 언덕에 발을 내디딘 후,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겨울을 보낸 뒤 마침내 꿈에 그리던 정복을 입고 성무연병장에 당당히 섰던 순간부터 정확히 1,000일이 되는 날이다.

수많은 사역으로 보낸 1학년 생활, 기쁨에 겨워 독수리 구호를 외쳤던 사역 이양식,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심을 길러준 3번의 하계군사훈련, 목이 터져라 번호를 불리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뛰었던 무용구보, 2년 연속 거행되었던 국군의날 시가행진, 무용기, 성무제 등으로 점철된 1,000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로만 표현할

수 없는 추억들의 집합체이다.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함께 추억하기 위해 공군사관학교에는 입학한 지 1,000일이 된 3학년 생도들에게 축하를 전하는 몇 가지 특별한 문화가 존재한다. 먼저 ‘천일 영상’이 있다. 보좌관 생도로서 후배 학년의 교육을 담당하며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 된 3학년 생도에게도 실수 넘치고 어리숙하던 저학년 시절이 있었다. 귀엽고 우스꽝스러운 사진들로 가득한 3학년 생도의 흑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식당에서 전 생도가 시청하며 추억으로 빠져드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다음으로, ‘천일 사진’이다. 천일을 맞이한 3학년 생도들이 정복과 예복을 입고 찍는 사진을 의미하는데, 빼죽빼죽한 머리의 2년 전 사진과 달리 약장과 공수 윙, 블록과 휘장이 가득한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감회가 새로워진다.

마지막으로 ‘천일 회식’이다. 천일 회식은 입교 1,000

일을 맞이한 3학년 생도를 위해 선후배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문화이다. 지금까지의 생도 생활의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선후배들과의 추억이 곁들여져 함께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진다.

소설 <키다리 아저씨>의 제루사는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전 행복의 진정한 비밀을 발견했어요, 아저씨. 바로 현재를 사는 거죠”라고 이야기한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결국 이루어 낸 1,000일이라는 시간. 그것은 74기가 모두 함께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어쩌면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들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작은 순간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도기자 74± 김영환
fanta031224@mnd.go.kr

76기 사관생도 망토 수여식

지난 12월 5일, 공군사관학교에서 76기 사관생도 망토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행사는 매년 12월 첫 주말을 맞이하기 전 1학년 생도 대상으로 실시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함께 전 생도가 명예광장에 집합하여 명예위원장 생도의 취지 설명을 듣고 시작되었다. 이후 2학년 생도가 1학년 생도에게 직접 망토를 입혀주고, 전대장 생도의 훈시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망토 수여식은 선배 생도인 2학년이 후배 생도인 1학년에게 직접 망토를 입혀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망토의 역사 및 상징성을 되새기고 사관생도들의 정체성과 명예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망토 수여식 이후, 12월부터 정해진 기간 외출하는 전 생도는 망토를 착용해야 한다. 망토는 동절기 정복 위에 착용하는 외투로, 외투의 어깨에서 가슴선까지 부착된 날개식 디자인에서 유래된 명칭이며, 붉은색의 내피는 공군사관생도의 뜨거운 정열과 투지를 상징한다.

공군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중 유일하게 외투 대신 망토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군사관학교의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4학년 명예위원장 임다민 생도는 “76기 성무기초훈련 때 생활지도생도로서 민간인이었던 76기 예비생도들에게 체련복을 건네주었던 게 잊고계 같은데, 벌써 망토를 건네주네요. 1년 동안 참 많이 성장해 온 우리 76기 생도들이 망토를 입으니 참 멋있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76기 생도들이 망토 수여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날을 응원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1학년 동기회장 김우진 생도는 “벌써 망토 수여식이 라니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망토를 두르고 행복해하는 동기들을 보니 정말 행복하고, 망토를 날개 삼아 항상 정진해나가는 76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늘 망토를 수여받은 76기 사관생도들은 앞으로 ‘하늘을 지킬 지도자’로 성장할 것이다. 이번 망토 수여식은 76기 생도들의 도전과 열정을 다시금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생도기자 76± 김리하
riha4922@mnd.go.kr

2024년 사관생도 합동교육

함께 뭉쳐 강한 국군의 첫걸음



지난 11월 4일 각 군간 합동성 강화를 위한 사관생도 합동교육이 시행되었다. 육군, 공군, 해군, 국군간호 사관생도는 교육을 위해 1학년 생도들은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들은 합동순항훈련을 위해 해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들은 공군사관학교로 떠났다.

현대의 전쟁은 한 군이 혼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적으로 군사 행동이 수행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군의 독자적인 전문성을 넘어 합동작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사관생도 합동교육은 장차 군을 이끌 생도들에게 타 군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주며 각 군의 작전 체계, 무기체계, 생활에 대한 배움을 넘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차후 국군의 합동 능력 강화에 발판이 되어 준다.



1학년 생도들은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육군에 대해 배우고, 육군만이 가지는 작전적 특징, 무기체계의 특징을 배웠다. 첫 합동교육으로 타사관학교 동기들과 처음 만난 1학년 생도들의 교육은 주로 분대 단위로 시행되었다. 분대는 육군사관학교 분대장 생도를 필두로 육, 해, 공, 간호 사관생도로 이루어져 있고, 친선활동과 견학, 체육활동을 함께하였다. 견학 활동은 제3땅굴, 도라전망대, Army Tiger 여단 견학, 드론보전투단, GOP에서 진행되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AR, VR 체험을 통해 실전과 가까운 전투상황에서 사격 훈련을 하였고, 국군 유일의 기마부대라는 상징성이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승마 체험을 하였다. 1학년 생도들은 비교적 생소한 육군의 용어와 작전 체계를 배웠으며, 처음으로 만난 타 사관학교의 동기들과 함께 국군 합동성 강화의

시작을 알렸다.



2학년 생도들은 2024년 합동순항훈련을 위해 해군사관학교로 출발했다. 마라도함, 천자봉함, 노적봉함에서 각 사관학교의 2학년 생도들이 함정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해군의 작전, 해병대의 상륙작전 등을 배우며, 해군의 무기체계에 대해 배웠다. 합동순항훈련을 위해 합동순항전단이 창설되었다. 합동순항훈련과 함께 한 훈련 일정은 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출발하여 일본 요코스카와 괌을 거쳐 다시 진해로 돌아오는 항해 루트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크게 함상에서 진행되는 함상 교육과 정박 후 진행되는 정박지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함상 교육에서는 항해 당직을 체험하고, 함선 구조를 배웠다. 또한, 전투 배치 및 함대 기동을 관찰하며 해군의 전투를 체험하였다. 기항지인 일본 요코스카에서는 미(美) 7함대 사령관을 접견하였고 일본 부대를 견학하였다. 목적지인 괌에서는 UN사 후방기지를 견학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평화 방법에 대해 배웠다. 또한, 6·25 참전용사비에 헌화하고, 전사적지를 답사하는 경험을 하며 역사적 및 안보의식을 다잡았다. 2024년 합동순항훈련은 각 군 2학년 생도들에게 함선이라는 생소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주며 해군을 이해할 기회를 주었고, 여러 나라에서 많은 걸 보고 배울 기회를 주었다.

3학년 생도들은 공군사관학교에 방문하여 공군의 작전 체계, 연합작전 체계, 무기체계에 대해 배우고, 패러글라이딩을 배우며 3차원 공중환경을 체험하였다. 3학년 생도들은 공군의 중앙집권적 작전 체계에 대해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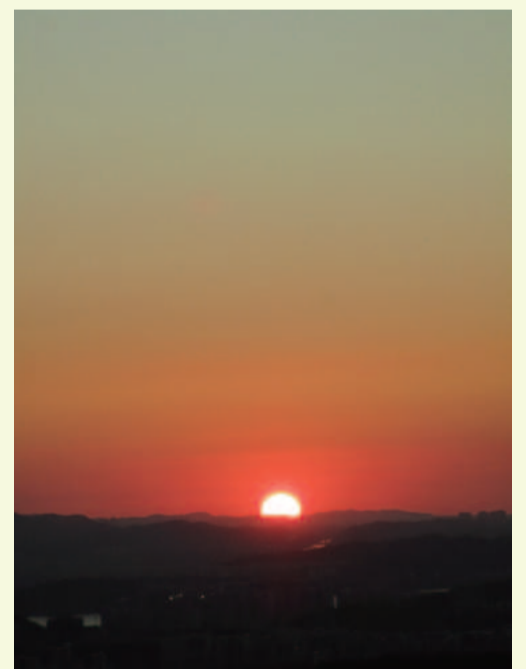
고, 근접항공지원작전에 대해 토론을 하며 3년간 생도들이 배운 공군의 시점과 자신의 군의 시점 차이를 이해하고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작전적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생도들은 제19전투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 제55전대,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F-35, F-15K를 실제로 보고 무장의 역할을 배울 수 있었고, CPT(Cockpit Procedure Trainer)를 통해 항공기 조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공군작전사령부에서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중앙방공통제소(MCRC), KAMD 작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중앙에서 통제되는 공군의 작전체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배웠다. 특히, 공군사관학교와 공군작전사령부 사이 이동은 C-130을 통해 이루어져 생도들이 군용항공기를 체험할 수 있었다.



사관생도 합동교육은 각 군의 사관생도들이 서로를 만나고 이해하며 추후 각 군 합동작전의 초석이 되어 주는 좋은 기회이다. 4개의 사관학교 생도들은 합동교육을 통해 강한 국군의 미래의 밑그림을 그렸고, 앞으로 이 그림은 더 구체화될 것이다. 2024 합동교육을 통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군을 넘어 함께 뭉쳐 강한 국군이 되는 힘찬 첫걸음은 내디뎠다.

생도기자 74± 정연제
leothelays96@gmail.com

포토에세이



떠오름과 저물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의미해지는 황혼과 여명의 차이. 시작이자 끝인 우리의 삶처럼 아름답다.

생도기자 76± 박예원
crow050204@gmail.com

하늘을 배우자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

공군의 수호천사,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사

생도기자 74± 나효빈
nhb9357@gmail.com

“내 곧 가리라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뜻과 힘을 모아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리니”

-항공구조대 비석에 새겨져 있는 문구 중-

‘내 목숨은 버려도 조종사 목숨은 구한다’ 그들에게 갈 수 없는 곳이란 없다. 어느 곳이든 조난자의 생명을 위해 한 줄기 희망이 되어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뿐이다.

공군에는 인명구조를 위한 특수부대가 있다. 바로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다. 이번 호에서는 공군의 특수부대인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와 항공구조사에 대해 소개하겠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역사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1958년 제10전투비행단 이하 소규모 전력으로 오산 공군기지에서 제33구조비행대대로 창설되었다. 이후에는 군산, 김포, 서울, 수원 기지 등을 거쳐오다가 1995년 제17전투비행단에서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로 독립했다. 현재는 예하에 제231탐색구조비행대대, 제233탐색구조비행대대, 제235탐색구조비행대대, 특수탐색구조대대를 두고 있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임무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인명구조에 특화된 공군의 특수부대이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전시에는 적의 공격으로 적진에 고립된 조종사와 승무원의 구조 임무를 주로 수행하지만, 평시에는 민간인 구조, 대민 지원, 물자공수 등의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한반도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탐색구조 상황에 대비하여 강도 높은 훈련과 24시간 탐색구조 비상대기 근무를 수행한다.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라는 부대 구호처럼 누군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대이다.

2008년에는 미군으로부터 조난된 미군 조종사에 대한 구조작전권을 전환받았는데 자국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미군에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의 작전능력과 항공구조사의 역량에 대한 인정과 믿음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운용 항공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가 운용하는 항공기는 총 6종으로 모두 회전익 항공기이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대대별로 특화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종을 운영한다. 운영하는 항공기간 서로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231탐색구조비행대대는 ‘치누크’라 불리는 대형헬기 HH-47D와 CH-47D를 주력으로 운영한다. 1991년 도입된 치누크헬기는 보잉사(社)의 쌍발 터보샤프트 탐색구조헬기로 메인 로트가 항공기 앞뒤에 두 개로 장착된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치누크 헬기는 전장 15.9m 전고 5.7m, 로터 지름은 18.3m이며, 최대 이륙중량은 24.5t, 최대속도는 315km, 최대항속거리는 772km에 달한다. 치누크 헬기의 장점은 높은 엔진출력과 효율을 바탕으로 한 최대 11,800kg의 화물 탑재가 가능한 엄청난 수송력과 수상착륙능력, FLIR(적외선 전방 감시 장치)를 통한 악시정과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폭넓은 작전 수행 능력이다. 이러한 기종 특성 때문에 231대대는 치누크 헬기를 이용하여 대규모 탐색구조, 대량병력 및 환자수

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33대대는 전천후 탐색구조, VIP 공수, 한미 연합 임무 등을 주로 수행하며 주기종으로 HH-60P ‘블랙호크’를 운용하고 있다. 블랙호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시코르스키사(社)의 쌍발 터보샤프트 탐색구조헬기이다. 국군에서 운용 중인 블랙호크는 대한항공이 면허생산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립, 수리 등의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게 되어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블랙호크는 전장 15.3m, 전고 4.4m, 로터 지름은 16.4m이며, 최대 이륙중량은 10t, 330km의 최대속도, 837km의 최대항속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완전무장한 병력 11명과 최대 3,600kg에 달하는 화물 탑재가 가능한 수송력을 갖추고 있다. HH-60P는 탐색구조에 최적화된 회전익 항공기로 악천후 상황에도 위험 상황을 경보하여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기능 레이더와 주 야간에 임무가 가능한 전자지도 시현 장비 등의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235대대는 3개의 기종을 운용하는 다기종 비행대대로서 탐색구조, 산불 진화부터 최초 배속 조종사의 교육 훈련 임무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HH-32와 AS332, Bell 412를 운용하고 있다. HH-32 ‘카모프’는 러시아의 쿠메프사(社)에서 제작한 항공기로 2차 불곰 사업을 통해서 2004년 6월에 공군에 도입되었다. HH-32는 테일 로터가 없이 꼬리날개만 존재하고 주 회전날개가 2중 동축반전로터인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HH-32는 낮은 사고율과 2중 동축반전로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수한 비행 성능과 수송능력 때문에 탐색구조, 산불 진화와 화물 공수 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임무 소화가 가능하다.

AS-332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사(社)가 제작한 다목적 헬기로 대통령 전용 헬기로 도입되어 운용하다가 현재는 주요 인사 공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B-412는 전 세계 민간부문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는 헬기로 공군 외에도 방송국, 경찰, 소방 등 다양한 곳에서도 운용되고 있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에서는 처음 배속된 조종사들의 교육 훈련 임무를 위해 운용 중이며 2024년 퇴역을 앞두고 있다.



공군 항공구조사 소개

◆ 항공구조사 역사

공군 항공구조사의 역사는 1958년 제33구조비행대대가 창설되면서 시작되었다. 창설 이래 항공구조사는 서해 웨리호 침몰사고, 울진 대형 산불사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오송 지하철도 침수 등 재난, 위급 상황에 투입되어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2008년에는 한-미 간 탐색구조 임무전환이 완료되었고, 한반도 내 미군에 대한 탐색구조 작전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군산 미 공군 F-16 추락 해상 조난자 구조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항공구조대는 2019년에 항공구조대대로 승격되었고, 1년 뒤인 2020년에는 특수탐색구조대대로 고유명칭이 개정되었다.

◆ 항공구조사 역할

항공구조사는 전·평시 비상탈출 또는 피격 등으로 조난한 우군 조종사나 승무원, 재난현장에 있는 조난자를 구조하여 안전하게 의료기관에 인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때 구조를 요청한 상태에 따라 필요시에 항공구조사가 직접 응급처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가장 주된 작전 형태는 구조헬기를 탑승하여 조난자에게 접근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시 상황이라면 구조헬기가 전투기, 공격기 등과 함께 편대를 이루어 작전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조난자의 위치에 따라서 구조헬기 접근이 제한된다면 낙하산을 이용한 공중침투를 통해 조난자 위치에 접근하거나 해상침투를 이용해 접근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항공구조사를 PJ(Pararescue Jumper)라고 부르기도 한다.



◆ 항공구조사 양성과정

항공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군의 부사관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 이후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원을 선발한다.

다수의 인원을 선발하여 약 1년간의 항공구조사 기본 교육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수한 인원들만 항공구조사로서 수료를 하고 있다. 이 1년의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전투 생환 및 산악구조훈련, 전투수상·수중 탐색구조훈련 등과 같은 항공구조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기본훈련과 공군의 공중근무자로서 이수해야 하는 비행환경 적응훈련 및 생환훈련 등의 교육도 수행한다. 이 기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항공구조사는 이후 고공 낙하산 강화, 응급구난 다이버 양성과정, 수중 다이버, 특수전 교육, 응급구조사 교육 등의 전문화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진정한 항공구조사로 거듭나기 위한 기간을 거친다.

감수: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운영과 정훈담당

조국을 지킨 하늘의 영웅들

신채호, 안창남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각성을 위해 헌신한 두 명의 하늘의 영웅이 있다. 신채호 선생과 안창남 선생은 우리 민족이 외세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자존을 잃지 않도록 민족적 토대를 제시하고 독립의 열망과 가능성을 널리 알려 자부심을 드높였다. 두 위인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고 그들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자.

신채호

신채호(1880-1936) 선생은 일제 강점기 당시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으로서 조국의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한국 근대사의 방향을 제시한 인물이다. 신채호 선생은 일찍부터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는 역사관을 제시하며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일제 식민사관에 맞서기 위해 노력했다.

일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여 조선을 타율적인 국가로 묘사하려 했던 반면, 신채호 선생의 민족주의 사학은 한국인의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일깨워주었다. 신채호 선생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으며, 이는 조국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숭고한 애국정신을 담고 있다.

신채호 선생의 민족주의 사상과 독립 의지는 많은 독립운동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정신은 오늘날 공군을 비롯한 우리 군 조직에



신채호 선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깊이 스며들어 있다. 독립운동가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신채호 선생의 유산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정신을 견고히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공군이 단순히 무력을 사용하는 군사조직이 아닌 민족의 자주성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만든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신채호 선생의 신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뤄내는 데 기여했고 앞으로 닥칠 그 어떠한 위험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깊은 토대와 사명을 우리 공군에게 선사하였다.

안창남

안창남(1901-1930) 선생은 항공 분야에서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한국 항공의 선구자이다. 한국 최초의 비행사인 안창남 선생은 1920년대 초, 일본 도쿄의 오구리비행학교에 입학하여 이듬해 정식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다. 1922년 서울 여의도에서의 고국 방문 대비행과 1923년 경성에서의 비행 시범을 통해 언론과 많은 관중의 관심을 받았다. 조선인으로서 뛰어난 비행술을 뽐내는 안창남의 모습은 당시 많은 조선인에게 항공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고 일제의 압제 하에서 독립의 염원을 불러일으켰다. 조선 사람들에게 안창남 선생의 고국 방문 비행은 국가적인 행사 그 자체였다.

1923년 간토 대지진을 겪은 안창남 선생은 일본 내 조선인 수천 명이 학살된 것에 분노하여 항공독립운동가로 거듭나게 된다. 그는 일본 항공계를 떠나 중국으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항공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항공 교관으로 지내며 후학을 양성하여 후에 항일 전선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인재들을 배출했다. 독립운동을 하며 중국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도중 그는 1930년 비행기의 고장을 시험하기 위해 비행하다가 산에 추락해 순직하였다.



안창남 선생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안창남 선생은 단순히 조종사라는 직업적 경계를 넘어 한국 항공의 선구자이자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의 활동은 이후 항공 독립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그가 보여준 기술적인 성취와 의지는 일제강점기의 억압 속에서도 독립과 자주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안창남 선생의 비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자 상징적인 업적이 되었다. 안창남 선생의 훈장은 현재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감수: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황선호 교수

생도기자 74± 오서현
sh2959shh@gmail.com

추천도서

인문학과 가까워지는 길

'가장 귀족적인 것'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봤는가? 만일 못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인간이 설 자리는 점차 AI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노동뿐 아니라 고차원적 활동 역시 AI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인간 존재의 이유 내지는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쉽게

답변하기 힘들다. 여기서 인문학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도태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인문학과 가까이 지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문학이라는 게 그리 쉬운 학문은 아니다. 당장 철학서를 읽어보려 해도 두꺼운 그 심오한 내용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인문학을 일상의 다양한 고민과 연결하면서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책, <내 불운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를 소개해보려 한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이 책의 저자인 김현집은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이름일지도 모르겠다. 몇 년 전 공군사관학교에서 3년간 철학개론을 가르쳤던 교수였기 때문이다. 비록 나는 그의 수업을 듣지 못했지만, 책에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수업했던 에피소드가 짧게 수록되어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책은 저자 김현집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역사상 가장 특별했던 사람들의 에피소드와 엮어서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다. 이 책은 저자가 가볍게 이야기를 풀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편하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살면서 마주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며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서도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고, 또한 우리가 생도로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에피소드를 한 가지 소개해보겠다.

"운이 다할 때 사람은 정신을 닦혀 빈 공간을 채워야 한다." 이 말은 재치와 유머가 뛰어난 전쟁 영웅이자 정치가였으며, 노벨문학상을 받기도 했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이다. 그는 귀족의 삶을 누리며 총

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최상 위층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우울해했다. 자신의 인생이 실패가 아닌가 늘 두려워했다. 그는 성적이 모자라 옥스퍼드를 가지 못하고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했으나 그것조차 3번의 도전 끝에 입학한다. 그가 지휘한 갈리폴리 작전은 대실패로 끝나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도중 공식적인 자리에서 50번 이상이나 눈물을 흘려 '우는 아기(Cry-Baby)'라고 불리기도 했다.

처칠은 모든 것을 입에 물고, 손에 쥔 채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그도 과오가 있었고 실수와 후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고 평생 짐으로 여기며 부끄러워했다.

김현집은 여기서 수치를 아는 것이 진정한 귀족의 자질이라고 봤다. 그가 생각하는 가장 귀족적인 것이란 불평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책임지고, 거짓되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 것이다. 수치가 아니라면 권력자가 머리 굽힐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공군 장교가 될 사람들이다.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자리를 대표하게 될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의 앞에 나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가장 귀족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해야 한다. 사관학교 내에서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것이 명예임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글을 읽은 사람이 장교로 임관하고 나서도 귀족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도기자 76± 강요환
childrenofwind@gmail.com



다시 보는 항공전사

유고슬라비아 내전: 얼라이드 포스 작전

유고슬라비아의 내전은 짧게 끝나지 않았다. ‘딜리버리트 포스 작전’으로 보스니아 내전에서 세르비아를 협상의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 있었다. 이후 유고슬라비아의 내전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전쟁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다. 보스니아 다음은 코소보였다.

코소보 내전의 원인은 코소보인들이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코소보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절의 자치권을 박탈했으며, 당시 코소보엔 80%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있었음에도 세르비아는 독립에 대해 반발이 컸다. 코소보와 세르비아 간 의견은 합의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코소보의 급진파는 무장 투쟁을 위해 ‘코소보 해방군’을 결성했으며, 이로 인해 무장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갈등이 심화하자 NATO 공군과 미군이 다시 발칸 반도에 개입했다.

1999년 3월 25일, NATO 공군과 미군은 보스니아 내전에서 공군력으로 세르비아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얼라이드 포스 작전’을 계획한다. 이 작전의 핵심은 보스니아 내전의 ‘딜리버리트 포스 작전’과 유사했다. 전략적 목표 타격을 통해 세르비아를 평화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것이었다. 작전은 약 79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스텔스 폭격기들도 투입되었다. 전략폭격에 있어서 진가를 발휘한 F-117뿐만 아니라 B-2 폭격기가 처음으로 투입되기도 한 작전이었다. 이 작전엔 829대의 항공기가 투입되었고, 3만 8,000회 이상 비행했다. 목표물에 2만 3,600발 이상의 폭탄을 쏟아부었다.



1999년, 작전을 위해 투입된 B-2 폭격기
(Air Force Historical Support Division 제공)

NATO는 코소보 내 세르비아군 전차 120대, 장갑차 220대, 야포 450문, 항공기 121대를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작전 결과는 NATO 공군과 미군에 있어서 성공적이었다. 이 작전으로 1999년 6월, 세르비아는 평화 결의안에 서명했다. 그해 6월 25일, 코소보 내전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그러나 NATO 공군과 미군은 코소보에서 퇴각하는 세르비아군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파괴했다고 보고했던 전차, 장갑차, 야포 등이 퇴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NATO의 발표와 달리, 세르비아군의 피해는 전차 13대, 장갑차 6대, 야포 6문에 불과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세르비아군 방공망에 의해 격추당한 F-117의 잔해
(The Aviationist 제공)



코소보 내전 당시 목조로 제작된 세르비아 MIG-29 디코이
(Belgrade Aviation Museum 제공)

세르비아군은 ‘디코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정밀 유도 무기 체계를 속이기 위해 디코이도 과거보다 정교해졌다. 단순하게 형태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철판을 덧대어 레이더에 탐지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등유를 태워 배기가스를 내뿜는 것처럼 위장했다. 아무리 기술력이 높아졌더라도, 정교한 디코이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위의 결과처럼 NATO 공군과 미군은 세르비아군의 디코이에 맹렬한 폭격을 가한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아 측 주장에 따르면, NATO 공군과 미군이 폭격을 가하면서 8,000명 이상의 민간인 피해도 발생했다. 그리고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 열화우라늄탄 사용 등으로 인해 NATO 공군과 미군은 국제 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F-117이 작전 수행 중 세르비아군 SA-3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이 승리는 반쪽짜리에 불과한 셈이다. 우리가 이 작전에서 배워갈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공군은 현대 전장에 있어서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밀 유도 무기 체계는 점점 발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맞게 북한도 정교한 디코이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정교한 디코이에 정밀 유도 무기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물 선정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신중하게 목표물을 지정해야 한다. 공군도 무기 체계와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감수: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황선호 교수

생도기자 75± 최윤준
choiyj1235@gmail.com

성 무 만 평

사관생도 합동교육



생도기자 74± 김서아
kimseo11111@gmail.com

편집국
입니다

툏아보기

누군가의 상처를 들여다본 기억을 고백해보세요.

편집국장 73± 정지원
jkjw0303@gmail.com



마지막 <편집국입니다>에 어떤 이야기를 펼칠까, 정말 많이도 고민했다. 겨우 시작한 글은 마무리를 앞둔 지금까지도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펼쳐도 되는가.'라는 지의(遲疑)로 이어지는 중이다. 그럼에도 돌아보며 주저하기보다는 단호히 밀고 나가려고 한다.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싶었으나 용기가 없어 그저 들여다보기만 한 4년이란 시간. 그 끝에 도래한 지금은 마지막인 만큼 예뻐 이야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순간마저도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찾아올 것 같지 않았다는 막연한 기우에.

앞으로 등장할 모든 말은 오래 묵은 고백이기에 다소 난해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신문의 정서와 편집국장의 위치에서 논할 이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추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 글이 가지는 의미를 먼저 밝히고자 한다. 376호 <편집국입니다>는 주변을 둘러볼 새도 없이 상처받던 내가 겨우 고개를 들어 마주한 누군가의 상처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었던 그 상처에 새살이 돋길 바라는 마음과 전하지 못한 진심을 동봉했다. 그러나 이번 이야기가 쉽게 소화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담아 한 가지 부탁을 청한다. 부디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마지막 외침이라 생각하고 불편함과 거부감을 눈감아 주길.

우리의 인연은 으레 그렇듯 선생님과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온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8살 생일에 맞이한 입학식은 작은 사회로의 첫 발걸음이었으며 그 애를 처음 만난 날이었다. 당시에 근위층중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어렸지만 한눈에 봐도 그 애가 나와 조금 다르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커다란 고철 덩어리가 품은 작은 몸과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 그게 그 애의 첫인상이었다.

천문학자가 되는 게 꿈인 그 애의 생일날, 별을 보러 가자는 말에 우린 천문대가 있는 뒷산을 올랐다. 맑은 두 눈에 별빛을 담으면 얼마나 예쁠까 싶어 보니 항상 노을빛으로 물들던 그 얼굴에 새벽녘 어스름한 푸른 빛이 돌았다. 아니, 어찌지 처연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리곤 걱정스러운 내 마음에 답하듯 조금 납부스러운 이야기라며 말을 시작했다. 언젠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지금의 자신처럼 하나씩 아픈 곳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보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는, 그들도 우울감과 패배감에 허덕이며 손닿지 않는 것들을 부러워할까, 아니 어쩌면 나는 그곳에서도 외딴섬이 되어버릴까, 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가진 부족함을 부러워하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했다고 하였다. 짧은 순간으로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고통을 마주하다 못해 잠식되는 그 모습은 자기 파괴적이기까지 했다. 그렇게 날것의 고백이 우리의 긴 겨울밤에 내려앉았다.

지금껏 그날을 떠올리며 험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건 아마도 '이제 괜찮아?'라는 나의 물음에 다 낫지 않은 마음이 괜찮아질 것이라 속으로 기한 없는 되뇌만 속삭일까 봐서. 그렇게 그저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애써 괜찮은 척하길 강요받게 될까 해서. 만에 하나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그 애를 사랑하는 마음에 건넨 말이 사회에 만연한 껌데기뿐인 위로가 될까 해서... 이런 이질감은 애써 모른 척하기엔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입을 꼭 닫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글은 나의 오랜 친구를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오랜 반례를 위해 써 내려간 것이다.

하이얀 도화지 같은 사람. 나는 그 애를 항상 이렇게 칭했다. 멋모르던 여덟부터 지금의 스물넷이 되기까지 여러 사회와 사람을 경험하고 이에 물들며 내가 가진 도화지는 제자리에 눌러붙은 물감이 한 가득이다. 그래서 나의 하늘엔 알밤이 자랄 수 없었고, 나의 바다엔 개나리가 만개할 수 없었다. 하늘과 바다는 그들의 이름을 붙인 그저 그런 색으로 남아야만 했다. 누가 정해준 적도 없는데 말이다. 이런 나와 달리 그 애가 사는 세상은 하얀 도화지와 같아서 울리고 싶은 색을 마음껏 올릴 수 있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하늘엔 포도가 열렸고, 바다엔 무궁화가 만개했다. 그의 도화지엔 무엇이든지 마음껏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가득했다.

내가 사는 세상은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주변 어느 것에도 시선이 머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흘러간다. 따라서 관행을 행하기만도 벅차다. 그러니 느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변화에 맞춰 무작정 달리거나, 소화가 채 되지도 않았는데 주어진 것들을 꾸역꾸역 받아먹는 일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휠체어에 안긴 그 애는 바퀴가 굴러가는 속도에 맞추어 품을 수 있는 것들을 향유하며 삶을 영위한다. 즉, 느림과 여유에서 파생된 고철의 미학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 애를 외딴섬이라 느끼게 만든 세상의 벽은 어쩌면 그로 하여금 흰 도화지와 무지개를 품게 만들었는지라도.

투명해진 산하엽의 꽃잎 같은 사람. 나는 그 애를 항상 이렇게 떠올렸다. 산하엽의 꽃잎은 마른 상태에서 그 표면이 공기와 닿아 빛을 산란시켜 흰색으로 보인다. 반면, 물에 젖으면 느슨한 세포 구조에 의해 빛의 투과율이 높아져 투명하게 변한다. 따라서 자유분방이란 꽃말을 가진 청초한 흰 꽃잎의 산하엽은 이따금 이슬이나 비에 젖으면 흰 꽃잎이 유리처럼 투명해지고 물기가 마르면 다시 흰색으로 돌아온다. 이처럼 연약한 구조에 불과한 잎은 불가항력의 자연 앞에서 찢어질 만도 하나 굴하지 않고 물기를 머금는다. 그리곤 여러 해에 걸쳐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 애는 태어남과 동시에 슬한 불가항력의 좌절과 고난을 마주해야만 했고 이는 산하엽에 내린 이슬이나 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그리고 거세게 찾아왔다.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하늘 아래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기보다 깊은 잠으로의 도피를 택하며 스스로 역치가 낮다고 단정 지었다. 그러나 사실 그 애는 우울감과 패배감이라는 비바람을 머금을지언정 꺾이지 않았다. 사회적 시선에 숨어들기도, 태생적 한계에 좌절하기도 하였으나 곧 물기를 말리곤 어느새 본래의 색을 되찾았다. 그렇게 다시금 자신이 좋아하는 하늘과 별, 우주를 노래하며 그만의 꽃과 열매를 가꾸어 나간다. 그러나 그 애는 푸르른 감정들로 내면을 투영하고 이를 양분 삼아 무럭무럭 자라날지도.

문학 속 시적 허용 같은 사람. 나는 그 애를 항상 이렇게 소개했다. 시적 허용은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 비문법적인 문장 등 문법상 틀린 표현이라도 시적인 효과 혹은 예술적 효과를 위하여 허용하는 것이다. 즉, 언어 규범에 어긋나나 특별히 허용되는 표현이다. 이처럼 그 애는 자신에게 '틀렸다'라고 외치는 세상 앞에서 틀렸다고 불리는

특별함을 허용하였다.

세상을 구성하는 우리는 모두 남들과 조금씩 다르다. 그 애도 그저 많고 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인데 그 특별함이 유독 눈에 띄었다. 나에게만큼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자 한없이 아름답지만 한 사람인데 모두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장난으로라도 나에게 싫을 소리를 하지 못하는 그 애에게 세상은 아주 많이, 자주 '틀렸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굳이 반박하지도, 역정을 내지도 않았다. 그저 학년이 올라가면 교실 층이 높아지는 초등학교에서 6년 내내 1층에 교실이 있다는 것을, 운동회날 모두가 결승선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에게 달려갈 때 부모님과 함께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매일 휠체어에 앉아있는 덕분에 좋아하는 책을 쉴 새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자신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 이야기했다. 이처럼 다른 이들이 갖지 않은 것을 품고 마주한 세상은 어쩌면 그로 하여금 틀렸다는 말에 특별함이란 허용을 가능케 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었는지라도.

누군가의 상처를 톏아보는 일에 나는 하릴없이 그 애의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서툰고 부족하며 미숙하고도 아쉬운 것들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되었다. 세상은 늘 완벽함을 추구한다. 더 나은 모습, 더 뛰어난 성취,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듯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부족함과 미숙함이 지닌 가치를 잊었다. 그 애가 세상과 맞닥뜨리며 만들어낸 작은 발걸음들은 나에게 가치를 돌려주었다. 부족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미완의 마음과 자아가 커가는 속도에 맞춰 서서히 닫히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각일 뿐이다. 마치 갓난아이의 굳지 않은 정수리에 자리한 숨구멍이 뇌 성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누가 뭐라 하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상처 많은 그 애는 나에게 이만큼이나 무한한 사람이다. 물론 이 또한, 그저 주변인으로서 관찰한 것에 불과하기에 멋대로 재단하거나 주제넘게 참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든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까닭은, 누군가의 상처를 톏아보며 단순히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부족하고 서툰 존재들에게 전한다. 완벽함을 좇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부족함을 양분 삼아 피어나는 아름다움은 어떤 찬란함도 대신할 수 없는 빛을 지니고 있다. 자신만의 속도로 걷는 발걸음이 때로는 더디고 비틀릴지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노력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부족하고 서툰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낸 그대들의 세상을 소중히 여겨 달라고, 나는 감히 부탁하고 싶다.

나의 오랜 친구,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족하고 서툰 존재들이여. 당신들은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다. 결핍과 상처 속에서도 꽃피우는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삶을 진솔하게 살아가려는 그 노력이 세상 가장 특별한 색채를 만들어낸다. 그 아름다움을 잊지 말고, 부족함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를. 세상이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서툰고 미완성된 모습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걸작임을 나는 믿는다.

<제40회 하늘문화상 수필부문 최우수 수상작>



생도기자 76± 이상현
c2nt2rfi2ld2r15@gmail.com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안

당신이 어린 시절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 답변은 다양할 것이다. 누군가는 비가 오는 밤 천둥이 두려웠을 것이고, 누군가는 귀신이나 괴물이라고 부르는 신화적인 존재가 두려웠는지 모른다. 이런 다양한 답변들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공포감은 인류 보편적인 감정이다. 고대의 인류는 자연 재해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두려워하여 그것들을 신격화했고 과학이 발전한 현생의 인류도 크게는 사회의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작게는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일들을 불안해한다.

다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안이 인류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감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불안이라는 감정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류에게 유익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시시각각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대 인류에게 필요했던 불안이라는 감정은 현생 인류에게 족쇄가 되기도 한다. 당신이 들어간 시험장에서 이미 시작을 알리는 종이 찢

다면, 당신은 가진 지식만으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당신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는 이미 당신의 손을 떠난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불안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인 당장 눈앞의 시험지를 흐릿하게 만든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사고를 흐릿하게 만들어 통제할 수 있었던 것마저 놓치게 만드는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신격화하거나 숭배하여 불안을 해소한 과거의 인간과는 달리 똑똑한 우리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집중'이다. 인류의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인 뇌에 비해서 단순하다. 눈앞의 것에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에 대한 집중을 덜 수 있다. 저 멀리서 밀려오는 불안이라는 해일을 외면하려면, 내 바로 앞에 있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데에 집중하면 된다. 작은 파도를 헤쳐나가다 보면 멀리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해일은 어느새 사라질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다른 방법

은 불안을 위임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이 종교나 신념이 아닐까 싶다.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나, 본인이 관찰하는 신념이 굳건한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였을 때 그에 대한 불안감이나 부수적인 감정을 다른 곳에 맡겨 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완벽하게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불안의 대상을 신격화하여 두려워하는 것보다 나의 신이나 신념이 그것을 상대하게 하는 것이 훨씬 훌륭한 방법일 것이다.

현생 인류의 재해인 사회의 커다란 파장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다. 우리가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져 사회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두렵거나 회의감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마땅히 내 위치에서 해야 할 본분에 집중하고 굳은 신념으로 자신의 길을 관찰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불안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다.



생도기자 73± 이유진
eugenelee0214@gmail.com

가장 보통의 인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3년 전, 첫 기사로 만족스러웠던 오피니언을 작성한 이후로는 나의 경험과 생각에 관해 이야기할 결심이 잘 서지 않아 오피니언 기고를 미뤄 두었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오피니언을 작성하려고 하니 또 그때와는 다른 무게감에 선뜻 글을 써 내려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를 한참, 문득 나를 힘들게 했던 가장 개인적이고 평범한 순간으로 돌아가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의 수험생 시절부터 시작한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열정적인 순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순간, 바로 그 수험 생활을 해나가던 과거의 나는 눈앞에 놓인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헤매고 있었다. 긍정적으로 말해보자면 평균 이상은 된다는 것이겠지만 현실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싫은 것도 없는 나는 그저 무채색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떤 하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찬란한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동시에 시작부터 뒤쳐진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 없었다. 그렇다고 멈춰버린 것은 아니었다. 다만, 방향성이 없는 노력에는 확신이 따라올 수 없었을 뿐이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지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성적이 내 발목을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 후로 재수를 하게 되었을 때도 남들과 같은 어떤 간절함이나 절박함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다행히 노력은 그만두지 않았기에 감사하게도 그 꾸준함만큼은 좋게 봐주셨기 때문일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여전히 나는 4년이라는 긴 생도 생활 동안 끊임없이 헤매기를 반복하고 있다. 졸업과 임관이라는 인생의 거대한 문을 열기까지 단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순간에도 말이다. 사실 생도 생활은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이미 충분히 대단하지만 동시에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하는 것에 길들기에 너무나도 쉬운 환경이다.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것만큼 편안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없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 대가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던져진 것이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나의 행복일까?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변화하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본디 나는 무던한 사람이다. 장점이라면 장점이지만 돌아켜보면 항상 현재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의미기도 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 이게 내 최선이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이다. 무언가 하나에 몰두해 절박하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험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나는 내 한계를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누구에게나 나약한 순간은 존재한다. 하지만 최고가 될 생각조차도 이를 위한 간절함조차도 가져본 적 없어서 항상 남들을 동경했던 나는 나의 이 부족함을 더는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졌다.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고,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않으며, 최고를 목표로 노력하고 결국에는 그곳에 도달하는 과정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만 드는 것이다. 비록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서 영화처럼 극적인 순간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새 막을 열 선택 정

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복잡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요즘, 이를 흘러보내기보다는 고집스럽게 파고들며 생각을 정리하고,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문장들을 글로 남기면서 고민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기록을 남김으로써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지금의 결심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실패해도 된다는 것이다. 결과보다는 도전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 테니 말이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의 나는 노력하는 자였으니, 이제 즐기는 자가 되어보고 싶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어떤 목표를 마음에 품고 있을까? 나처럼 당장의 목표가 없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쯤은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잊고 있던 목표가 있다면 다시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의심하면서 진심을 낚날이 해부해보기도 하고, 글로 써 보기도 하는 것은 어떨까. 나처럼 눈앞에 닥친 선택에 급급해지기보다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충분한 시간을 들여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한 철학자의 말마따나 삶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irth와 Death 사이의 수많은 Choice가 만들어내는 여러분만의 유일한 삶에 후회 없을 열정이 가득하기를.



생도기자 73± 권진오
jinh1357@gmail.com

군인의 역할 이상과 현실 사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중국의 부상은 우리도 이러한 전쟁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등 군사력 건설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행동의 문제가 아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정치의 다른 수단에 의한 연속”이라고 말하며, 군사적 행동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임을 강조했다. 이때 군인의 역할은 단순히 국방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치의 연장으로서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봐야 한다.

오늘날 국제질서를 형성한 전쟁은 세계 2차대전이다. 군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자.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 독일의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주도했으나 이후 재판에서 “자신은 단지 명령의 충실한 공무원이었으며, 권한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라며 자신의 도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을 회피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당시 재판을 참관하면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집필하고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개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괴물’이거나 ‘극악무도한 악당’이 아니라 단순히 사유하지 않고, 체제와 명령에 순응한 평범한 인간이다.

아렌트의 인간 본질에 대한 고찰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이 되기 위한 본질적 조건은 ‘정치적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정치란 단순히 권력이나 정책에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타인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공적 영역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폭력을 통해 상식을 무력화시키고, 사람들을 사유하지 않는 꼭두각시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정치적 존재로서의 본질을 잃고, 공적 영역이 제거되며 인간성마저 파괴된다. 아이히만처럼 사유 없이 체제의 부속품으로서 명령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군인의 역할이 아니다.

국제체제의 차원에서 군인의 역할도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 전략 수립의 주된 이론인 현실주의는 국가들이 무정부 상태의 국제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힘(Power)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설령 국방력을 강화할수록 안보가 낮아지는 안보 딜레마와 같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국가의 생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힘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역사란 무엇인가』로도 유명한 E. H. 카는 『20년의 위기』에서 이를 뒷받침하며 국제정치가 항상 권력정치(Power Politics)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현실주의

만으로는 국제질서의 개선이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상주의의 중요성도 동시에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순수한 현실주의는 인간의 목적론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을 부정하기 때문에 적나라한 권력 투쟁 외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과 생각은 기계적인 것, 무의미한 것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주체이다. 이에 따라 군인은 힘의 주체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국민을 지키고 전쟁에 대비하는 현실주의적인 원칙을 따르지만, 이상주의적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현실주의만으로는 위태롭고, 이상주의만으로는 공허하다. 오늘날처럼 강성 권력이 지배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이상주의적인 생각은 몽상적인 이야기로 치부될 수 있다. 그래서 필자가 제시하는 군인의 역할은 이상과 현실 사이 조화를 이루는 어떠한 지점이다. 이 문제는 사람에 따라 논쟁적이며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 매우 어렵지만, 그 지점을 찾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결코 한 극단으로 치우치거나 사유하지 않은 채 판단을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군인의 역할은 체제의 부속품이 아니라, 현실에 두 발을 딛고 당당한 현실과 미래의 꿈을 연결하는 것이다.



생도기자 73± 이종수
C26Jongsu.Lee.KR@afacademy.af.edu

Remembering the Beginning

It might sound a little cliché, but time really does fly. My classmates are getting ready to graduate, and I can't help but think back to when we first stepped onto 성무대(Sung moo dae). Back then, everything was so new, and every day felt like a challenge. Now, as I look back, those early days seem like a distant memory and yet as if they were just moments ago.

When people talk about “staying true to your beginnings,” they usually mean keeping the same energy and passion you had when you started something. But that's not exactly what I want to focus on. When we were first accepted into the Air Force Academy, it was a huge moment for a lot of us. For some, it was the realization of a dream, or for others, it was pride and excitement about a big accomplishment. But those feelings didn't last forever. As we got used to cadet life, our focus shifted from celebrating the past to setting new goals for the future. That's just how life works—we keep moving forward.

For me, a big turning point came when I went to the U.S. during my sophomore year. Starting over in a completely new environment was exciting, but it was also overwhelming. I quickly ran into challenges I hadn't faced before. The language barrier and cultural differences made me feel out of place, and I often felt isolated. Back home, I never thought twice about talking with friends, but in the U.S., even small conversations became stressful. That pressure started to undermine my confidence.

When I think about staying true to where we started, I don't mean just pushing through. I mean remembering what made us proud in the first place. During those tough times, I thought back to when I was chosen to come to the U.S. as an international cadet. I remembered how proud my parents were, how excited my siblings and friends were, and how some upperclassmen cadets started looking up to me. Those memories reminded me that I was capable and valuable, even when I

doubted myself.

Sometimes we get so caught up in our struggles or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that we lose sight of the bigger picture. When things go wrong, it can feel like the end of the world, and we start to question our worth. But if we take a step back, it's easier to remember the big picture—the pride we felt when we first started and the value we have just by being ourselves.

To my classmates, as you prepare for what's next, I hope you'll remember this: you're already enough, just as you are. You've been someone's dream, someone's source of pride, and someone's role model. Even when things get hard, don't forget that. Remember how far you've come and the person you've become, and let that drive you forward.

To the 73, congratulations on making it through these past four years. The future won't always be easy, but I know you're ready for it. Let's keep going and do our best. You've got this!

뜨거울 때 차갑게 안녕, 2024 <편집국입니다>

24년도의 <편집국입니다>가 가질 방향성을 제시한 372호, 거짓된 평화에 대한 경계와 불편한 진실에 대한 용기를 담은 373호, 순간과 감정의 명명의 필요성을 녹여낸 374호, 다정한 이들을 떠올린 375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틈에서 새어 나온 아름다움에 대해 고백한 376호의 오피니언까지. 올 한 해 동안 마주한 <편집국입니다>는 어떠셨을지요? 모든 글이 더없이 좋았다는 찬사를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때론 난해하다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거나 필자의 개인적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속으로 반박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두가 저라는 사람에게 수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글이 아니었기에 이 또한 예상했던 바이며,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섯 번의 이야기가 잘 쓴 글인지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처음 목적 그대로 <편집국입니다>의 방향성을 잘 담아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373호 '불편한 진실, 거짓된 평화'는 '적당함'에 진절머리가 난 탓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악업에 대한 저항을 떠올렸으나 그저 '되값음'에 불과하다는, 또 하나의 악업을 남길 것이라는 생각에 미음보단 연민이 자리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평화와 악업을 지속하는 이에 대한 비판을 털어내고 나 홀로 나무의 곁을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동봉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나 홀로 나무들이 하나둘 모이면 언젠간 거대한 숲이 되어 푸르를 것이라 믿으며.

두 번째, 374호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시간'은 생도대와 세상에서 만연하게 보이는 언어와의 숨바꼭질을 끝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하고 내뱉는 과정이 다소 낮간지럽고,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 저편으로 숨어버린 언어를 되찾기 위해선 계속해서 해내는 수밖에요. 흐르는 세월 속에서 아름다운 경험과 잊지 못할 추억을 머금은 채 전해지는 단어들이 난연하길 바라며 감정의 촉매제라는 조각 하나를 동봉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행복을 노래하며, 기억의 표류가 아닌 감정의 항해를 하고자.

세 번째, 375호 '그리움: 건(鰲)을 봄'은 우리가 살아낸 23년의 봄·24년의 가을을 보내주기 위해 시작된 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살아내는 날도 있을 테지요. 떠나는, 남아있는, 하물며 지켜보는 이마저도 눈물짓게 한 그해, 그날. 분명 누구 하나 잘못된 것이 없는데 모두 자신을 탓하기 바빴습니다. 이제는 배움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정해서 더 그리운 이들의 이름, '봄'과 '건'을 동봉했습니다. 떠난 이들의 인생 한 자락을 머금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곳에선 나의 인생으로 초대하겠다며, 그렇게 그리움에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네 번째, 376호 '툭아보기'는 '세상을 미워하지도 못할 만큼 착한 너를 보며 때론 무척이나 이기적이길 바란다.'라는 제 일기 한 구절에서 시작된 글입니다. 완벽을 좇는 세상에서 세상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 배로 상처받는 모습에 세상을 혐오(厭惡)하는 일을 함께하자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자기혐오는 있어도 세상을 미워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위한, 어쩌면 결핍과 상처 속에서 꽃 피우고 있는 아무개들을 위한 오래된 고백을 동봉했습니다. 미완이 만들어낸 세상 가장 특별한 색채가 그 주변을 물들일 수 있도록.

<편집국입니다>를 시작하며 했던 다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생각하거끔, 소외되는 이가 없게끔,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은 나날이 커졌고, 글감에 대한 고민은 그 배로 커졌습니다. 길어지는 마감 탓에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이었던지조차 헛갈리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고, 뜨거운 마음이 들끓은 나머지 활자로 남을 영원의 이야기에 오점을 남기진 않을까, 근거 없는 사건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정도를 지나친 건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매 호를 준비하며 마주한 미로 속에서 공사신문의 사훈(社訓) '뜨거울 때 차갑게'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뇌에 마침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본래 글을 쓰는 사람의 심장은 뜨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심장은 잘못된 일을 쉬이 지나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며, 탄성 한계를 잃은 것들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홀로 나루하는 이가 없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과하면 일을 그르치듯, 너무 뜨거운 심장은 중심을 잃고 날뛰기 마련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분개하거나 급하게 뛰어들어 그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차갑게'입니다. 미친 듯 뱉어내고 싶은 뜨거움이 가득한 찰나 차가운 이성으로 한층 식혀주며 미지근하게 스며드는 것, 이러한 <편집국입니다>가 되기 위해 올 한 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국입니다>를 빌려 이어간 일장 연설은 군더더기가 많을뿐더러 미사여구의 범람에 지저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저와 견해가 다른 이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

는 형국이 되지 않길 바란 마음이, 글을 쌓아가는 모든 순간에서도 배제되는 이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 흘러넘친 탓이라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흑백논리를 경계하는, 많은 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공성을 위해 때론 주류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편집국입니다>가 되고자 많은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차근차근 돌아보니 철저히 편집국장 개인이 겪고 마주하며 느낀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다소 공감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제가 공사신문의 한 페이지를 빌려 전하고 싶었던 확연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화창한 봄날 가로등 아래서 훑날리는 벚꽃잎을 맞이할 때, 여름날 쏟아져 내리는 비의 비릿한 냄새가 울려 퍼질 때, 혼자인 게 편하면서도 누군가 곁을 내어주었으면 하는 가을날과 올 한 해도 수고했다며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겨울날, 어느 순간이든 문득 떠올리고 찾아올 수 있는 곳, 우리 공사신문이 그런 곳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해도 제가 남긴 것들만큼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변치 않을 테니까요. 아니 어쩌면 무겁고 쓸쓸하고 담백한 이 고백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랐을지도 모르겠네요.

모두 다 털어놓은 이제는 공사신문과 <편집국입니다>를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호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편함으로 배달된 다섯 번의 제 이야기가 각자의 사연을 떠오르게 하였나요? 그래서, 알 아주시 못한 채 지나간 그때의 감정을 어루만질 수 있게끔 했을까요. 그대들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게끔 했을까요. 혹은 아주 오랫동안 품어 왔던 제 마음을, 숨겨왔던 고백을 전하는 순간에 그대들의 마음 한 귀퉁이가 따뜻해졌을까요.

글을 업으로 삼은 것은 처음이라 미흡한 점이 많았을 테지요. 그럼에도 독자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공사신문, 오피니언, 그리고 <편집국입니다>가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픈 저를 도리어 아끼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은 더욱 정진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편집국이었습니다.

편집국장 73士 정지원
jkjw0303@gmail.com

